

여성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마련

정부, 범죄 취약지역 CCTV 확충·신축건물 남·여 화장실 분리 확대·흉악범 보호수용제도 도입 등

정부가 골목길이나 우범 지역 등 범죄 취약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가 도입된다. 여성 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응급입원 조치 등을 취하도록 했고, 정신질환·알코올 중독 수형자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을 마련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중국 주광주총영사관 신임총영사 송 지사 예방 중국 주광주총영사관 송신영사 신임총영사가 취임예행으로 1일 전북도청을 방문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정부는 우선 골목길이나 우범 지역 등 범죄 취약 지역에 CCTV를 확충, 안경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내년까지 총 5,493개 지역에 CCTV 추가 설치를 위해 604억원의 예산을 마련한다.

공중화장실발생행위를 개정해 신축 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공용 화장실을 분리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6월 한 달 동안 범죄취약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각 경찰서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주민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 대상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알코올중독 치료 지원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 조기 발굴 체계가 마련된다.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에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의뢰를 강화한다. 경찰관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시 '위험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조치 가능한 때'는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 조치를 실시한다.

이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과 관련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 및 입원요청 기준 등 매뉴얼을 정비하기로 했다. 위법한 강제입원 구제를 위한 인신보호관 제도도 추진된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 외래치료명령 불응 시, 수검의무를 부과하고 검사를 거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입원 조치가 취해진다.

◇보호수용제도 도입,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가석방 심사 강화 등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해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가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12월 보호수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는 수형자와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도 마련된다. 여성 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치별 강화 및 피해자 지원 대책도

수사 초기에 피의자가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으로 판명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도 치료조건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서별로 편성돼 있는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활용해 데이트 폭력 발생시 즉시 현장 출동하고,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를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선전담 변호사도 추가하는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평화 모범사업장·대상 공모

8일까지 접수... 모범사업장 6곳·산업평화대상 12명 선정

1일 전북도는 산업현장에서 노사화합과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사업장과 사용자 단체 등을 선정해 예산 지원은 물론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8일까지이며, 공모 참여 희망 기업과 대상지는 사업장 관할 시장·군수 노사협력 담당부서, 한국·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경영자총협회, 전주·군산·익산·정읍 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장은 현지조사와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사를 거쳐 6월중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6개소(대기업 1, 중견기업 2, 중소기업 3)와 산업평화 대상 12명(개인 6, 단체 6)을 최종 선정한다. 신청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노

사분규가 발생하지 않고 산업평화를 이룩한 사업장 중에서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을 선정하며, 산업평화 대상은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근로자·사용자 개인이나 사업장·노동 단체에 수여된다.

지원혜택은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노사화합 증진 프로그램 사업비로 대기업 1억 1,500만원, 중견기업 2억 1,200만원, 중소기업 3억 700만원, 총 6,0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산업평화 대상은 도지사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된다.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56개 기업을 선정해 8억원의 재정 지원을 했으며, 산업평화 대상은 같은 기간 동안 37명을 선정했다. /정영수 기자

도, 수산자원기반 조성에 71억 투자

1일 전북도는 올해 수산자원 보호 및 번식을 통한 어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총 7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산자원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인공어초 설치(25억원), △바다목장 조성(20억원), △바다숲 조성(9억원) 및 △수산종묘매입 방류(17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군산과 부안 3개 해역 14단지, 112ha 해역에 인공어초를 설치해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바다목장 조성은 도서 연안의 수산자원회복과 지속적인 어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군산 옥도면

(96ha)과 부안 위도(30ha) 2개 해역에 5년간 100억원을 투자해 인공어초 및 자연식 설치, 수산종묘 방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축소된 해조림과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 다양한 수산생물의 서식 환경개선을 위해 군산 옥도면(67ha)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한다. 또한 날로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을 회복하고 풍요로운 어촌을 만들기 위해 도내 7개 시·군 수역에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해삼, 넙치, 우럭 등) 700여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정영수 기자

전북연구개발특구 테크비즈센터 건립 급물살

미래·기재부 보조금관리위 적격 판정... 내년 실시설계용역 시행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조기정착을 위한 기술사업화 서비스와 산·학·연간 교류·소통의 비즈니스 장이 돼 줄 전북테크비즈센터(기칭)이 설립된다.

1일 전북도는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 및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적격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테크비즈센터는 신규 사업으로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부지 13,200㎡, 연면적 19,300㎡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규모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기재부의 적격심사는 정부예산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중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에 대해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 올해 신설됐다.

올해 기재부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는 정부부처가 제출한 45개 사업 중 10개가 적격 판정을 받고 나머지 5개(78%)는 2차 심의대상으로 분류됐다.

앞서 도는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전북연구원에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타당성용역'을

의뢰해 올해 2월 용역을 완료했다. 이후 올해 3월 미래부의 사전심의를 받고 4월 기재부에 적격심사를 의뢰했지만 해당사업의 수요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평가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 판정을 받았었다.

그러나 도는 평가위원 대면심사시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필요성과 입주 수요, 도의 사업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이번 심사에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전북테크비즈센터는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이 시행될 계획이다. 이를 위

해 미래부는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을 반영했으며 이후 총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2018년 착공해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으로 인해 연구사업의 유치와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One-Roof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전북특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테크비즈센터(TBC)는 기술사업화를 위한 윈드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R&D(연구개발) 기능과 생산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체계화된 과학기술 지식과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네트워크 장이다. /정영수 기자

도, 2017년 복권기금 확보액 93억 전국최고

1일 전북도는 2017년도 복권기금 확보액은 올해보다 35억원 늘어난 93억원으로 전국최고, 역대 최고 규모의 복권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가 복권기금을 이 같이 많이 확보하게 된 것은 2014년 복권기금사업 평가결과 좋은 성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년 기재부 공모 일자리 창출사업에 추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도는 내년도 복권기금을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과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올해 복권기금 58억원으로 이미 추진 중에 있으나 내년 확보된 기금으로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영수 기자

역 규모의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을 건립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도는 '전북 어린이 창의박물관 건립사업'을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채택하고, 2016년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해 왔다.

또한, 일자리창출사업 30억원은 저소득층 1,500가구 대상으로 지방, 부영과 화장실 설치, 도매, 장판, 보일러 등을 교체해줄 계획이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올해 복권기금 58억원으로 이미 추진 중에 있으나 내년 확보된 기금으로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영수 기자

주간(주말), 야간면접 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강의특징〉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렴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량운행(유치부 조동부)함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전담교수
 • 면접지도 전북1호 강사
 • 한국유변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 "365인스피치케어"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유변인협회, (사)한국유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